

시사이슈

신종마약의 위험성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예제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대마초와 필로폰 등으로 구성되었던 전통적 마약시장에 신종마약의 유입으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저렴하고 효과가 강력한 신종마약이 전체 마약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클럽이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GHB(물뽕), 졸레틸(더블K), 스파이스(합성대마), 배스솔트(좀비마약), 힘까 등이 대표적이며, 신종마약의 잠재적 중독자 예방을 위해 약사의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키워드

신종마약, 마약관광, 마약지수, 마약시장 재편, GHB, 졸레틸, 스파이스, 배스솔트, 힘까, 잠재적 중독자

1. 신종마약의 경고

(1)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경향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던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등의 마약은 원래 천연물질에서 의약품으로 출발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우수한 각성제, 식욕억제제, 피로회복제 등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그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알려지면서 법률에 의해 추후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다. 한데 요즘 출몰하는 신종마약들은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마약을 위한 마약'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마약의 특징이 구하기도 어렵고, 고가에다 몰래 숨어서 복용하는 것이었다면 신종마약은 이 기존 마약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클럽이나 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환각효과와 지속시간도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클럽 등의 파티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투약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한마디로 공급대비 확산속도가 빠르고 반향효과가 큰 청년층을 주 고객으로 번져가기에 딱 좋은 장점을 가진 마약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왔었다. 인구 10만 명 당 적발된 마약사범을 나타내는 마약지수가 20이하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20이하를 기록해오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이 수치가 20을 살짝 넘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IMF 사태 때문에 유학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유학중이던 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그들이 유학시절에 클럽 등에서 접했던 엑스타시나 대마초 등을 당시 유행하던 테크노빠 등을 통해서 범람시켰기 때문이었다. 마약지수가 20을 넘어가면 확산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인지 이 클럽을 통한 확산은 현재 청담동과 홍대 앞 클럽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지속되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단순히 술과 춤을 즐기러 온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곳을 통해 신종마약이 밀려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약지수의 10배가 실제 중독자수라고 추정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20만 잡아도 5천만인구이면 최소 마약중독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관광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한다. 중국 청도같은 경우만 해도 마약판매자 1명이 하루에 700명분을 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관광을 하는 것인지 자못 우려가 된다. 현지에는 마약가이드까지 있을 정도인데, 주 소비자층이 우리나라 관광객이라 하니, 이제 우리도 마약청정국이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심각한 경계경보를 발령해야할지 모를 상황인 것이다.

(2) 우리나라 마약시장의 변화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나라에서 중독자들이 찾던 마약의 주류는 대마초와 필로폰 등이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도 흡연증이 대마초를 접하게 되면 중독의 나락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필로폰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대마초를 gateway drug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른다. 여기에 클럽을 중심으로 엑스터시 정도가 많이 사용되었던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마약에 신종마약이 끼어들면서 변화가 오고 있다. 마약중독자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술한대로 값싸고 환각효과와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 침투하는 신종마약에 의한 마약시장의 재편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하다. 2008년까지 신종마약으로 유입되었던 벤질피페라진은 합성대마의 유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소리소문없이 사라져갔다. 가격이나 효과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인데, 대신 합성대마의 유입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만 전년대비 634%가 상승했을 정도이다.

〈표〉 신종마약 적발실적

(단위: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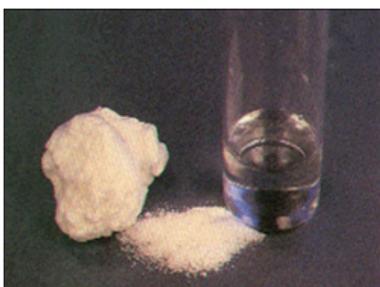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5월 | | 전년동기 대비(%) | |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합성대마 | | | 1 | 30 | 31 | 605 | 39 | 3,059 | 19 | 6,889 | 12 | 634 |
| 합성케치논 | | | | | | 1 | 4 | 32 | 7 | 76 | - | - |
| 피페라진계열 | 1 | 25 | 4 | 29 | 5 | 12 | 1 | 0 | 2 | 4 | - | - |
| 기 타 | | | | | | | | | 1 | 1 | - | - |
| 합 계 | 1 | 25 | 5 | 59 | 36 | 618 | 44 | 3,091 | 29 | 6,970 | 71 | 642 |

※자료 : 관세청

이렇게 효과가 높은 신종마약들은 후술하겠지만, 부작용도 기존 마약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결국 점유율을 높이고 난 후에는 사회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마약의 유도체 등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의 변형 등으로 인해 마약법에 의한 단속 기준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이처럼 인위적인 합성에 의해서 태어난 마약들을 designer drug이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를 목표로 유입되는 신종마약은 물병이라 불리는 GHB, 더블K라 불리는 즐레틸, 대표적인 합성대마인 스파이스, 그리고 좀비마약이라 이름 붙여진 배스솔트 및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힘까 등이 있다.

2. 신종마약의 종류

(1) GHB(γ -Hydroxybutyrate)



물병이라고도 불리며, 원래 의학적으로 마취제, 우울증 치료제, 기면증 치료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특징은 맛이 약간 짜긴 하지만, 무색, 무취의 형태로 물에 잘 녹아드는 액체의 형태이다. 따라서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댔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없으며 24시간내에 완전히 배설되기 때문에 증거보존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강간이나 강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GHB를 탄 술이나 음료를 마시면 단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가수면 상태가 된다. 나중에 의식이 깬 후에도 의식을 잃었던 3~4시간의 일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기억이 파편처럼 점점이 흩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당했던 범죄행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어렵다. 제법만 알면 일반인들도 제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화주문 광고가 길거리에 넘쳐나는 형편이며, 과용량을 복용하면 호흡을 놓치고 사망하거나 연속 사용시 신장질환과 안면신경마비의

심각한 후유증도 올 수 있다.

(2) 졸레틸(Zoletil)

동물마취제로서 마약으로 사용되던 케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면서 환각작용이 두배나 되기 때문에 더블K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정맥주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분말로 가공하여 흡입하면 환각효과를 나타내면서 마약으로 사용된다. 최근 동물마취제의 사용량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 어떠한 동물실험이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용 동물의 사용량도 줄어든 형편이다. 그러나 졸레틸은 최근 3년간 성인 100만명 분이 판매되었다.



Zoletil 50(Virbac)

물론 마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 동물의약품 취급허가를 받은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도 이 졸레틸에서 정신적 의존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시점으로는 약국에서의 1차적인 제동이 절실한 형편이다.

(3) 스파이스(Spice)



기존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와 비슷한 구조로 합성된 것이며 일명 JWH-018이라고도 불리며, 스텝크라는 별명도 있다. 담배형태로 흡입하는데 천연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뛰어나고 1회 흡연에 무려 환각효과가 6~8시간 지속되면서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장점 때문에 국내 대마초 시장을 급속도로 대체해가고 있다. 스파이스 때문에 마약의 국내 밀반입이 2011년에 비해 무려 34%나 증가했다. 이 밀반입 경로에 주한미군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최근 미국 1명이 무려 7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스파이스를 들여와서 10배의 수익을 남기고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판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합성대마는 담배형태 뿐만 아니라 쿠키나 케이크, 버터 및 브라우니 형태로도 위장하여 반입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4) 배스솔트(Bath salts)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배스솔트는 목욕용 소금과 비슷하다고 해서 배스솔트(bath salt)라 불린다. 흡입하는 형태로 투여하는데 환각효과가 코카인이나 엑스타시보다 10배정도 강하고 1회 투여에 효과가 수일간 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배스솔트는 얼마전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2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거벗은 30대 남자가 60대 노숙자의 얼굴 살점을 뜯어먹다가 경찰에게 사살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평소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성경공부도 했지만, 배스솔트에 중독되면서 그의 이성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이 배스솔트를 법으로 금지한 주는 28개주 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주에서는 편의점에서 20~25달러만 주면 쉽게 살 수 있을 정도이니 기존의 마약을 급속도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배스솔트는 얼마전 서울역 앞에서도 판매를 하려던 사람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 고열, 고혈압, 신부전, 과다편집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5) 힘까



예전에 이슬람 암살집단에서 사용하던 환각제를 해쉬쉬(hashish)라 불렀다. 대마수지로 만든 마약이 해쉬쉬인데, 이 해쉬쉬 가루에 독성이 강한 꽃가루를 혼합한 것이 신종 마약의 일종인 힘까이다. 국내에서도 이 힘까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생산은 중국에서 밀반입은 항구를 통해 러시아 선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해쉬쉬도 환각효과가 강해서 암살자들이 암살을 한 후에도 이 해쉬쉬에 취해서 도망도 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힘까지는 훨씬 더 강한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마약중독 확산을 위한 제언

미국에서는 마약중독을 막기 위해 원산지과 자국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미국 내 밀반입되는 마약의 90%는 여전히 막을 수가 없다. 연간 대마초 소지 혐의로 50만명을 감옥에 보내고 마약거래 초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별무소득이다. 장차 어린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회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남의 얘기하듯 할 일이 아니다.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장애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것도 마약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전국에 4세대 이동통신인 LTE가 보급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6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터넷 클릭만으로 마약이나 기타 금지약물을 구할 수 있는 지는 꽤 오래되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큰 효과는 없다. 서버를 우회해서 마약을 주문하는 방법, 평범한 유학생을 통해 밀반입하는 방법 등 현실의 법감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속은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약물에 필요이상으로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어린이부터 깨우쳐주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인 중독자를 예방하는 것이 현재의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적인 내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약사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약사 Points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참여

-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및 계몽활동
- 마약 위험성 교육 및 계몽활동
- 학교약사활동 참여

2. 신종마약

- 신종마약 종류
- 잠재적 중독자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계몽활동

3. 마약류 관리

- 약국 마약류 관리 철저
- 동물약품품 취급 약국 : 졸레틸 관리 및 판매 주의

참고문헌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65853>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common/redirect.jsp?newsId=20120625000434#>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924MW17095759706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542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98393>

뉴스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633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60462>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12533&cloc=olink|article|default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약주식회사 5부작 시리즈

히스토리 스페셜, 위험한 유혹 마약 시리즈

